

중잖아
오늘은 제대로
돈이 있으니까

아니...
오늘은...
좀...

そして兄は
娼に堕ちる
そしてあにはあそびめにおちる

앞으로
한 시간이다
돈이 궁하지?
엘리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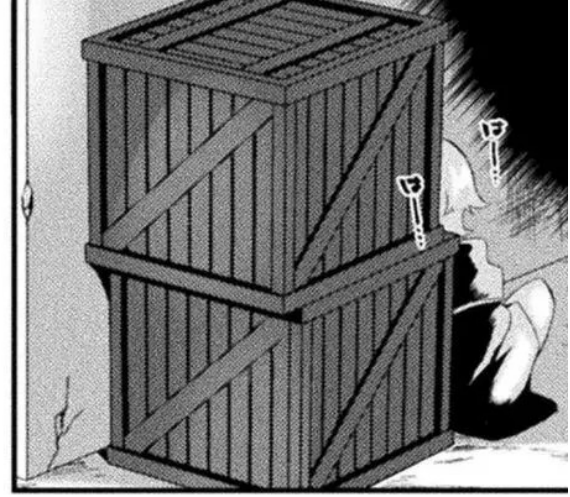
나중에
밥도
쏟 테니까

그게
아니라...
시간이...
그만
괜찮죠?

창녀 주제에
점잔빼기냐!!



위험했어...



나도 좋아서 이런 일을
하고 있는 게 아니다
아픈 여동생을 위해...
비싼 약값을 벌어야 해...



변두리의
낡은 창관에서
나 엘리아스는
여자 모습으로
창부로서 일하고 있다

사실은 백마술사... 인데
육체변화의 영약밖에
못만들고... 돈도 별로
안 되고 이런 시골에서는
돈 벌 수 있는 일도
별로 없다



남자인 내가 남자에게
머대로 범해지는 일은
삼을 수 없는
굴욕이다...
하지만 여동생의
미소를 위해서라면
이런 굴욕도
견딜 수 있다

하지만 약의
부작용으로
과용하면 수다
스러워질 수도
있을 텐데...
하지만 약의
부작용으로
과용하면 수다
스러워질 수도
있을 텐데...



이 녀석...
이 근처에서
유명한
불량배다...



왔다고
엘리스

가...
감사합니다...



강탈한
관에는
적인
강요...
강요...
강요...



젖는 거
도와줄게

웃...
가
감사합니다



자
빨리 벗어

네 네...





빨리 끝나라...



영상 기록 수정...?



?

아 그래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



왜 남자가
여자로 변해서
알랑대는 거야?
호모냐

너 외딴
누더기 집에
살고 있는
마술사잖아







굴욕적인
행위를
강요
당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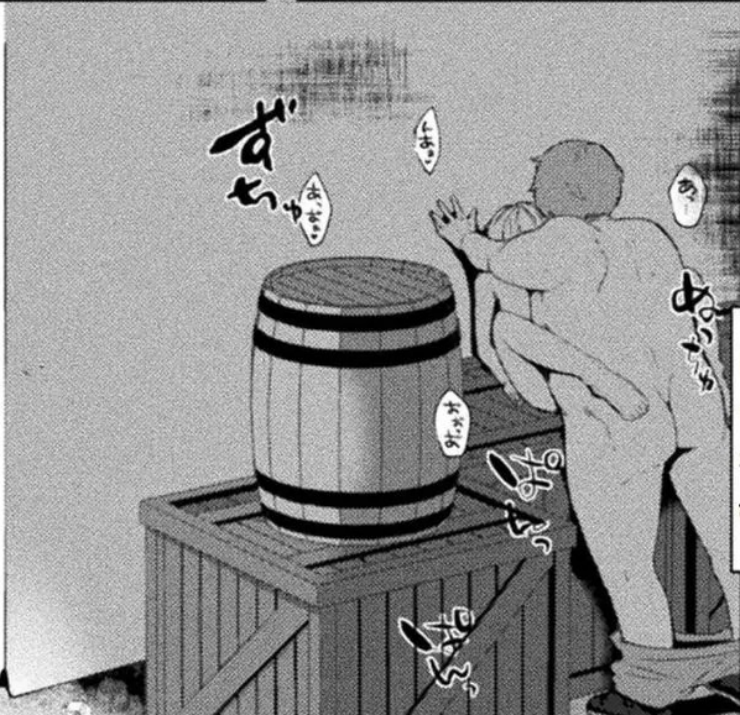


굴욕적인
복장을
입게 하고

그리고 나서
점차 하는
짓이
심해진다...



물론
그 돈은
모두 놈의
손에
들어갔다



그
복장으로
밖에
데려가서

다른
남자에게
팔리기도
했다

놈이 동료들
불려서
십여 명의
남자들에게
번갈아 가며
범해지기도 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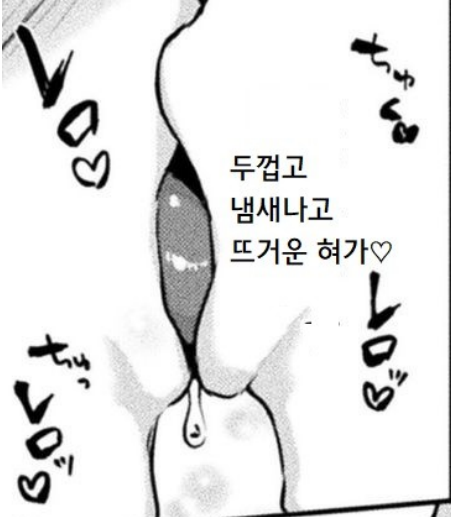
많은 손에
몸을
만져지고...
머리에 열이
나서 자꾸
새하얗게
되어간다.....

이 행위가
자꾸자꾸
쾌락에
연결되
있다는 걸
알았다

두 손으로도
세지 못할
정도로
질내사정
되었을 때







두껍고
냄새나고
뜨거운 혀가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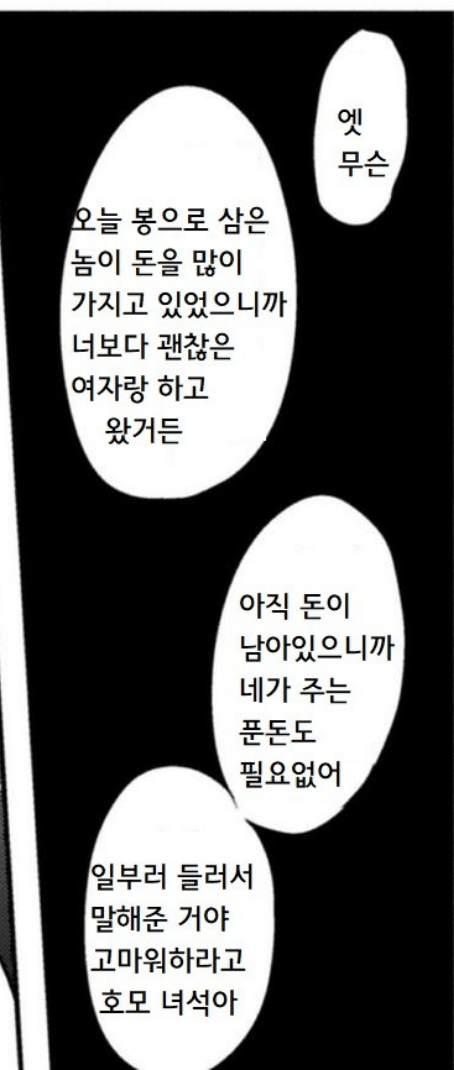
담배 냄새로
입안에
마킹되고 있어♡



자 이쪽으로
혀 내밀어 봐



뭐 슬슬
약효도
푹어질
거잖아



옛
무슨

오늘 봉으로 삼은
놈이 돈을 많이
가지고 있었으니까
너보다 괜찮은
여자랑 하고
왔거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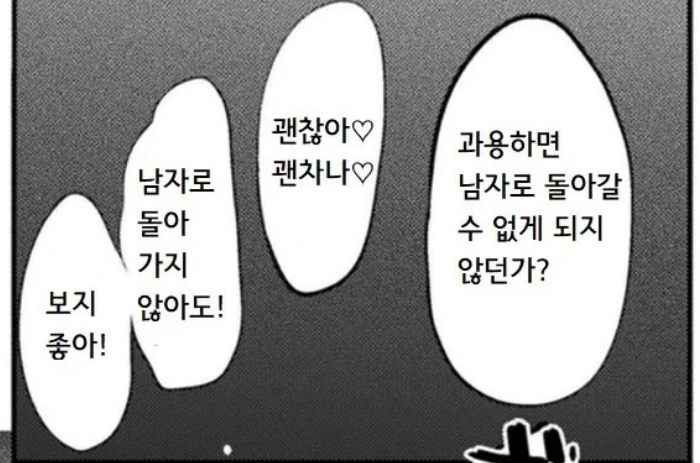
아직 돈이
남아있으니까
네가 주는
푼돈도
필요없어

일부러 들러서
말해준 거야
고마워하라고
호모 녀석아



후~~
슬슬
돌아갈까







스스로
허리
흔들고
말이야



암컷화한
육변기
창부라니
눈 뜨고
볼 수 없군

남자에게
범해지는 것은
모욕이라고
떠들더니만
자지 박혀서
좋아하고 말이야
남자는커녕
인간으로서
끝났잖아



확실히
마조
암컷이야

이제
수컷의
모습은
전혀 없군
그래



더 자지국물
기대하고
안에서
꾸욱대고
있어요♡

흉악한 거근으로
질내가 쭈켜쭈켜
해서 보지에서
암컷국물
넘쳐서 멈추지
않아요♡

더 안쪽에♡
자궁
망가져♡



바보같은
낮짝 보이지
말고 지금
보지 상황을
설명해라

네
네에



즐거운데ㅋ

뭐 다 귀찮으니까
직접 움직여

네에에
♡

그리고 보니...

왜 여자가
돼서
창부가 된
거더라...

왜 이렇게
됐을까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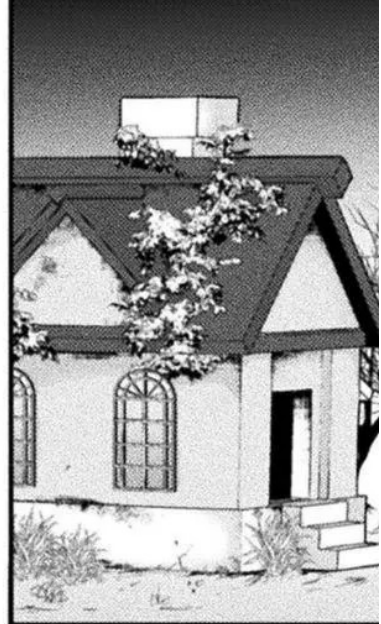
하하 오히려
상쾌할 만큼
보기 흉한
모습이군

좀더
단단히
자지
불잡으라고





오빠...
늦네



여자가 되고
창부가 되어
정말 좋아하는
자지에게
둘러싸여...

지금까지
무엇에
저항하고
있었던
걸까...
중요한
일이었던 것
같기도
하지만...

지금 나는
너무 행복해...

끝